

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‘건축행정 데이터 맞춤형 민간개방’

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(☎ 044-201-3770)

▶ 정부 3.0 시대를 맞이하여 민간의 신사업 발굴지원 및 창조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건축 인허가 및 건축물대장 등의 건축행정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여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.

- 그동안 건축통계 정보를 단순표와 그래프 형태로 제공하였으나, 건축인허가 및 건축물대장에 대한 허가·착공·사용승인기간·면적·용도 등 다양한 검색조건을 부여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정보의 접근 및 활용이 가능합니다.

- 건축물 현황은 정책수립과 건설시장 분석 등을 위해 국가 및 공공기관에만 제공하였지만 국민과 민간기업으로 제공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.

- 특히, 연간 1,800만건 이상 발급되는 건축물대장의 경우 국민들이 직접 온라인으로 시군구, 건축물 용도 등 다양한 조건을 입력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.
- 향후 건축행정 데이터의 공개대상을 개인정보를 제외한 모든 항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로 인해 민간에서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.

☞ (참고)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국토교통뉴스)보도자료)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“건축 행정 데이터 맞춤형 개방”

<건축행정 데이터(건축인허가, 건축물대장) 민간개방 내용>

- ▶ 추진배경 :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“건축행정 데이터 맞춤형 민간개방”
- ▶ 주요내용
 - ① 건축행정 데이터(건축인허가 및 건축물대장)에 대한 검색조건을 부여한 맞춤형 정보제공
- ▶ 시행일 : 2014.1. (건축행정 데이터 확대시행 2014.1.1 : 건축인허가30개 항목 및 건축물대장 30개 항목)